

# “격차 해소 국회 로드맵 필요... 고위공직자수사처 만들자”

국민의당 안철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학기술·교육·창업혁명 추진  
국회서 조세부담수준 다뤄야  
개헌 언급 없어... 기존정치 차별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2일 “격차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상임위법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힌 뒤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고 말했다.

안 대표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와 평화통일”이라며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다.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격차해소”에 대한 문제의식은 안 대표가 오랫동안 가져온 생각으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전해진 바 있다. 특히 안 대표는 “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공멸의 길에 들어선다. 사법정의와 조세정의의 비릇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혁명·교육혁명·창업혁명의 3대 혁명 추진을 위해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래일자리특위에 대해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꾸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이라며 “인적 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미래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면서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논의의 테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소속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결국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이게 된다”면서 “이 테이블을 언제, 어떤 형식과 조건으로 열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의 국면을 전략적으로 또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교육개혁과 관련,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교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미래’라는 단어를 22번이나 쓰면서 기존 정치 세력과 달리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세력을 자임하고 앞서 두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과는 차별화를 시도했다. 또 앞서 두 교섭단체 대표가 모두 짚고 넘어간 개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정치 현안에 관한 언급은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는 평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사무총장 조영택 前의원 내정설 논란

## “스포츠 전문성·인적 네트워크 부족”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조영택 전 국회의원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의원은 행정 관료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거쳤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 스포츠 연맹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우선되어야 하며, 스포츠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제 연맹 수뇌부와 직접적으로 협의 또는 협상이 가능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선 세계수영대회 사무총장은 나이키 등 국제 스포츠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을 대외 스폰서십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해외 홍보를 위해 세계체육기자연맹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필수적이다. 더불어 세계수영연맹 수뇌부와 수시로 대면 또는 전화로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각종 사항을 직접 조율해야 하는 만큼 국제스포츠 행사 관련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즉 사무총장의 업무는 단순히 조직위를 총괄·관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직

접 일선에서 스포츠를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실무형 CEO인 셈이다.

더불어 정부를 상대로 한 국비 확보 능력도 검토해야 한다. 조 전 의원은 행정자치부 차관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정통 행정 관료로서는 다양한 경력을 갖추었지만 국제 스포츠 마케팅 경험, 개인 간의 인맥을 중시하는 국제 스포츠 연맹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스포츠전문가들은 국제적인 수영 스타인 박태환을 배출한 대한수영연맹의 역량과 노하우를 익힌 전국적인 인물을 세계수영대회 사무총장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영택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공천 심사 탈락 후 무소속으로 광주 서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어 지난해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지역구를 광주 서우로 옮겨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다가 천정배 후보에게 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뻣뻣한 피난 행렬 뒤로 속절없이 막막한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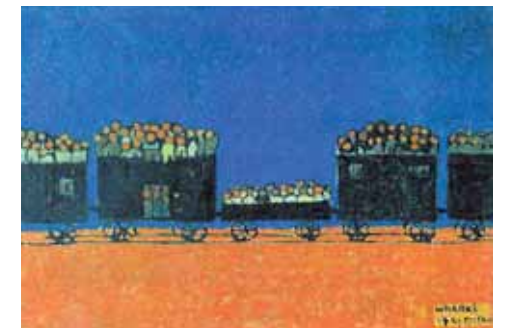


(159) 전쟁 일기

6월이 일주일 여 남았다.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6월을 보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가슴 아픈 민족의 역사이고, 한국인들에게 통한의 기억을 남긴 사건이니 말이다. 한국전쟁은 동족상잔과 이산이라는 처절한 슬픔을 만들고 개개인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말았다.

그 비극은 때로 미술작품으로 기억된다. 우리의 근대미술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거나 증언하는 전쟁화가 극히 적다는 점이 이 시점에서 더욱 아쉬운 마음이다. 서구에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새로운 미술운동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에 비해 한국전쟁은 우리 미술에 있어서 전환의 계기까지는 되지 못했다. 하지만 비극적 전쟁 상황을 담아냈던 몇몇 작가들의 작품은 새롭다.

수와 김환기(1913~1974)의 ‘피난 열차’(1951년 작)는 대상을 단순화하고 색채의 평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한국전쟁의 비참한 현실을 담은 작품이다. 순수 조형성을 지향



김환기 작 ‘피난열차’(1951년)

했던 작가이지만 전쟁의 참화는 그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소재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 같다.

고향을 뒤로 하고 떠나야했던 피난민들이 열차마다 무심하게 뻣뻣이 자리하고 있으며, 속절없이 푸르고 광활한 공간이 막막한 상황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작가는 같은 시기에 피난민들의 임시거처였던 ‘천막’과 ‘판잣집’등을 그린 작품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담담하고 절제 있게 증언하고 있다.

‘김환기 작가론’의 저자 윤난지교수(이화여대)는 저서에서 “김환기의 1950년대 초 그림에서는 동시대의 주변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양식 탐구와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쫓고자 하는 화가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쟁 시기의 그림은 세상과 주변인들의 삶을 담고자 했던 화가의 일기화처럼 느껴진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여야 의원 76명 참여 국회 ‘경제 협치’ 첫발 장병완·김광림 공동대표 ‘경제재정연구포럼’ 출범

여야 의원 76명을 회원으로 하는 대형 국회연구단체인 ‘경제재정연구포럼’이 22일 출범했다.

이 모임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제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경제도 협치다’라는 가치 아래 여야 3당 지도부와 대표적인 경제통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공동대표는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표가 모두 축사에 나서 경제문제에 대한 협치를 강조했다.

포럼 참여자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주영·정병국·정갑윤·최경환·강석호·권성동 등 중진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53명, 더민주 김 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진표 의원 등 4명,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주승용 의원 등 19명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